

역사·문화 있는 병영마을 오이소, 해설은 주민이 할랑게

강진 병영면

하멜기념관 800살 은행나무 병영불고기 '불금 불파'



주민 참여 강진 병영면 도시재생 마을여행, 새 관광상품 진가 발휘

강진군 병영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여행이 강진 알리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진가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전국에서 온 관광객이 병영 곳곳을 둘러보고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어, 인근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마을여행은 전라병영성(사적397호)에서 시작해 하멜기념관을 지나 마을의 터줏대감인 800년 된 성동리 은행나무와 하멜 일행이 살았다는 골목 옛 담장(등록문화재)이 늘어선 고즈넉한 한골목길을 거닌다. 마을의 큰일이 있을 때 울음소리를 내었다는 비자나무(천연기념물39호)와 예와 효를 가르쳤던 병영양로당(향토문화재)을 지나 맛있는 병영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불금불파' 행사장에 도착하면, 한 시간을 알차게 채운 여행이 완성된다.

마을여행을 이끌었던 해설사는 다름 아닌, 병영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병영면이 보유한 많은 역사 문화 자원과 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마을이야기가 더해져 감칠맛 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이다.



주민해설사가 병영면 마을여행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은행나무와 담장 등 옛스러움을 간직한 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하멜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는 관광객들. (강진군 제공)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주민들의 경험담 더해 감칠맛 나는 여행 빈집은 마을호텔·문화체험 플랫폼으로...내 집은 '오픈정원' 변신 콘텐츠 개발·해설사 역량 강화·전 세대 아우르는 프로그램 등 숙제

◇주민참여 오픈정원, 도시재생 빈집 마을호텔로 마을여행 콘텐츠 확대

해설사들은 많은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한 병영면 주민이라는 자부심과 지역을 대표해 관광객들을 만나 마을여행을 이끌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민해설사는 단순한 해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여행'을 이끌고, 관광객들은 해설사가 전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병영면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강진군은 병영면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생태관광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참여 오픈정원을 조성중이다.

가가호호, 너른 마당과 대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주



거환경 특성상 주민들이 잘 가꿔왔던 '내 집 마당정원'을 확대해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병영면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정원 1차 대상으로 마을의 주도로인 한골목길에 있는 주택과 공유지 등 15여 개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상지 중 일부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공간을 정비 중이다.

내년 봄이 되면 병영면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들이 손수 가꾼 아기자기한 정원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빈집 마을호텔 역시 주민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한골목길 한가운데 방치된 빈집 약 800여평 부지에 한옥 숙소와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라운지와 체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강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 20여채를 추가로 리모델링해 문화체험 플랫폼과 장단기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마을호텔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마을여행과 같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특화음식을 만들고, 특산품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등 마을호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소득증대 등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병영면의 색깔을 담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 여행 변신 필요

하지만 마을여행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남은 숙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지금까지 마을여행이 50·60대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가족, 연인 등 소규모 체류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부터 MZ세대, 노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진군은 판단한다. 현재 운영되는 자전거 투어 역사 해설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조성될 도시재생 마을호텔과 오픈정원과 연계해 병영면의 특색있는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완성도 있는 마을여행을 위해 병영중학교 학생들과 '마을여행을 위한 병영 문화관광 콘텐츠 제안발표회'를 개최했고, 주민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강진군 농가민박인 '푸소'를 통해 병영면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이야기 투어도 연계해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진행했던 마을여행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이었고, 앞으로 한층 더 풍부해질 2024년의 마을여행도 기대해 달라"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민간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1@kwangju.co.kr

“레트로 가득 병영면 모든 풍경이 포토존 관광객 맞춤 해설로 마을 이야기 전해요”

서금덕 병영주민해설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병영면을 알리는 일도 좋아요. 도시에서 떠난 친구들이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와 병영면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참 속상하답니다.”

올해 77세인 병영면 주민해설사 서금덕씨는 병영면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녔고, 결혼 후 귀촌해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

서씨는 “주민으로서 누구보다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성격 덕에 마을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병영면의 인구는 1200명 정도다. 서씨가 사는 한골목길 일대는 4개의 행정구역(성남리, 성동리, 남산리, 박동리)이 붙어있는 큰 마을이지만, 현재는 약 200여 가구만 살고 있을 뿐, 두 집 건너 한 집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서씨는 마을여행을 이끄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사람들과 '관광객 맞춤형 해설'을 짰다.



마을여행은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되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눈에 담는 배움터가 된다는 것. 요즘 트렌드라는 '레트로'가 가득한 병영면은 사계절 모든 풍경이 포토존이 된다고 한다는게 서씨의 설명이다.

서씨는 마을여행 관광객들에게 전라병영성 남문 누각인 진남루에서 꼭 사진을 남기라고 권유한다. 복원 중이긴 하지만 그 어떤 성곽보다 장엄하다고 말한다.

서씨의 바람은 마을여행을 온 사람들이 다시 병영을 찾는 것이다.

서씨는 “제 나이가 되면 의미있게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한답니다. 마을여행을 할 때마다 참 보람 있어요. 저로 인해 사람들이 병영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또 이곳을 찾아준다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1@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